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April 2011



Contents

- **UNEP FI 동향**
- **Asia Pacific 지속가능 금융**
- **UNEP FI Korea Group Activities**
- **New Publications**
- **Register Now!**



아프리카, 지속가능보험원칙 자문 창립총회 개최

UNEP FI와 아프리카 보험업계가 3월 중순에 아프리카에서 열린 지역자문회의에서 보험업계를 위한 지속가능원칙 개발의 첫 발을 내딛었다.

70명 이상의 아프리카 보험업계 내 고위 경영진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본 회의에 참석했다. 전세계 보험업자들이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세계적인 우수사례 구조를 총괄적으로 개발하는 전례없는 프로세스와 UN기반의 글로벌 보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본 창립총회는 아프리카 보험사 Santam과 남아프리카 보험연합에 의해 공동 주최되었다.

올해 자문 프로세스는 5월 16일과 17일에 걸쳐 브라질 São Paulo 에서 HSBC가 주최할 예정인 남미·카리브해 회의로 시작해서 북미, 중동·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순회한다.

한편, 지난 요하네스버그 행사는 아프리카 보험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각종 매스컴의 보도가 잇따랐다.

UNEP FI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Butch Bacan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자, 보인자, 투자자 및 보험업계는 변화하는 리스크의 이해와 전 세계적·시스템적 리스크 관리를 이끌기 위해 고유하게 배치되었다.”

본 프로세스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2012 UN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완성된 지속가능보험원칙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지속가능경제를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상세내용 참조](#)

프랑스 주주들의 ESG에 대한 관심



프랑스 기업 사회적 책임 연구센터(French Study Centr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새로운 보고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프랑스 주주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이슈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급상승했다.

본 연구결과는 4월 말, 파리 연구센터에서 발표되었으며 주주들에게 인기 있는 인게이지먼트 사례들의 다양성 및 개발의 개요를 서술한다: 이 사례들의 범위는 연차주주총회의 투표권 개혁부터 시작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기업간의 지속가능 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는 유럽기업들의 보다 나은 기업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유럽위원회의 녹서, “the EU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Paper”의 발자국을 따른다.

[보고서 전문](#) (프랑스어 버전)

[보고서 요약문](#) (영어 버전)

2011 Global Roundtable, 새로운 녹색 후원자로 인한 탄소 중립



firstclimate²



4월 초, 탄소 자산운용사 “First Climate”은 UNEP FI 2011 Global Roundtable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의 배출을 상쇄할 것을 약속했다.

Roundtable의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UNEP FI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본 행사로 인한 배출량의 70% 이상이 항공기와 행사장으로 부터 온 것이라고 측정되었다.

그러나 First Climate은 Global Roundtable의 녹색후원자로서, 행사 중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약 100 톤)을 상쇄할 예정이다.

First Climate의 집행위원 Sascha Lafeld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의무적 감소정책을 넘어 자발적인 배출량 상쇄가 가장 중요하다. First Climate은 이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UN을 후원한다”

UNEP FI 는 최대 환경 지속가능성에 도달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선도적인 녹색 이벤트 기획사인 Lori Hill Event Productions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Global Roundtable은 10월 19일과 20일에 걸쳐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1년 테마는 “The Tipping Point: 미래경제의 지속된 안정성” 이다. 현재 베스트셀러 The Black Swan 의 작가, Nassim Taleb 등이 Roundtable의 연설자로 확정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아르헨티나의 첫 UNEP FI 서명기관: Banco Galicia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민간은행인 Banco Galicia는 4월 초 지속가능 금융 협력 원칙을 준수하며 UNEP FI에 서명함으로써 아르헨티나에서는 첫 번째로 UNEP FI의 서명기관이 되었다.

Banco Galicia의 기업 사회적책임 매니저인 Constanza Gorleri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언제나 환경·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최첨단으로 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UNEP FI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Banco Galicia는 1905년에 설립되어 진보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주요 은행 기관으로 성장했다. 이는 현재 4천2백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제일의 개인은행으로 꼽힌다.

Banco Galicia는 UNEP FI에 가입하기 위해 이니셔티브의 기개를 나타내는 선언문인 UNEP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 성명서(UNEP Statement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서명했다. 서명기관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전세계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공인하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환경적 고려사항을 통합할 것을 약속한다.



뮌헨, 금융기관을 위한 생물 다양성 금융 행사 개최

4월 초, 독일 뮌헨에서 20여명의 금융기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표준, 신용 리스크 분석, 여신정책, 투자상품간의 상호작용을 조명하는 선도적인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HVB(HypoVereinsbanks) 와 VfU(Verein für Umwelt-management und Nachhaltigkeit) 가 공동주최한 본 지역 워크샵은 금융기관들에게 UNEP FI 자연자본정책(Natural Capital Statement)의 인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과, 금융기관들의 BES 이슈를 사업운영 내 통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성명서를 제공한다.

한편, 비슷한 유형의 지역워크샵 및 자문회가 런던(10' 05), 나고야(10' 10), 홍콩(10' 11)에서 차례로 개최된 바 있다.



[상세내용 참조](#)

PDP, UNEP FI 지원 요청



Plastic Disclosure Project (PDP; 플라스틱 공개 프로젝트)가 UNEP FI 회원사들에게 공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시아의 지속가능책임투자협회(Association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와 호주, 유럽, 미국의 파트너들이 결합하여 수립된 본 PDP는 플라스틱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을 추적할 예정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은 생물 분해성이 없고 재생이 불가능한 석유에 의해 생산된다. 또한, 제품과 포장에 있어서 플라스틱의 사용은 광대하며 1회용 소비가 늘고 있어 전세계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본 지원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발자국과 플라스틱 관리 전략을 공개하고 이니셔티브들이 대안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상세내용 참조](#)



국제 통합 보고 위원회, 포털 사이트 개정

INTEGRATED REPORTING <IR>

국제 통합 보고 위원회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는 4월 초에 새로운 웹사이트, www.theiirc.org를 발표했다.

Integrated Reporting은 기관의 운영 전략과 지배구조, 금융 성과, 사회·환경·경제적 배경간의 연계를 논증한다.

IIRC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 투자, 회계, 증권, 규제, 학계, 표준 제정 부문의 리더들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영국 황태자와 황태자비의 비서실장인 Michael Peat 경이 IIRC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2011년 청정자본 행사 리뷰



올해 3월 초에 지중해에 위치한 작은 공국에서 CleanEquity Monaco 2011 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UNEP FI 의장 Paul Clements-Hunt가 본 행사를 리뷰했다.

“이 행사는 항상 흥미를 유발한다. 이 작은 행사는 전세계 가장 작은 국가들 중 하나에서 개최된다. 매년 같은 형식을 따르지만 새롭고, 유익하며, 재미있고 색다르다. 만약 당신이 미래 청정기술의 맛보기를 원한다면 이 행사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CleanEquity Monaco는 총체적인 포부를 가지고 있다 - 청정·녹색기술 관련 이머징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그들에게 모든 연락처를 제공한다. 나는 UNEP Conference 에 참가하면서 우연히 첫 번째 CleanEquity에 참가하게 되었다. 신기한 것은, 두 행사가 서로 충분히 연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우리(UNEP FI)가 이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까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 원문](#)

코스타리카, GLOBE 2011 Summit 개최 예정



올해 코스타리카의 산호세(San Jose)에서 개최될 GLOBE 2011 Summit이 준비과정 중에 있다.

본 회의는 라틴아메리카와 그 외 지역에서 온 수백 명의 사업, 정부, 학계 리더들을 연결하고 재생 에너지, 물, 생물의 다양성, 탄소관리, 청정기술 투자, 책임 금융에 대한 통찰과 견해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발표자는 코스타리카의 주석 Laura Chinchilla Miranda, 미주국가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의장이자 기후변화완화 및 에너지를 담당하는 Mark Lambrides, 그리고 World Bank Group의 금융전문가이자 탄소금융담당자인 Chandra Shekhar Sinha 등을 포함한다.

[상세내용 참조](#)

4/6~8, '그린에너지엑스포' 개최



아시아 3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제 8회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가 대구 엑스코에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었다. 본 전시회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2013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가 주최하고 엑스코와 한국에너지신문사가 주관하여 전 세계 23개국의 35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로써, 해외바이어는 41%증가했으며, 전시장을 방문한 참석자의 수도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하여, 국내에서는 보기드문 국제 전시회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그린에너지엑스포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및 기업 기술고문이 발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최신 기술 동향, 해외 선진 정책사례, 시장 동향 등을 총망라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전문 컨퍼런스로 정착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상세내용 참조](#)

日 도쿠야마,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3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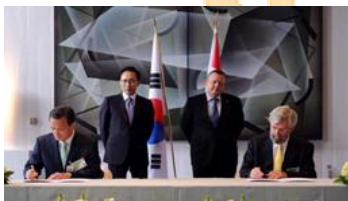


일본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기업, 도쿠야마는 총 1110억 엔을 투자하여 말레이시아 및 일본의 공장을 증설하고, 이를 통해 2015년까지 폴리실리콘 생산을 3배 이상 확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쿠야마는 글로벌 태양광시장 내 폴리실리콘 점유율을 현 5%에서 10%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상세내용 참조](#)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 체결



한국과 덴마크는 5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양국 정부 및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Korean Danish Green Growth Allowance)'을 출범시켰다. 양국이 주도한 녹색성장동맹은 양국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 등이 글로벌 녹색시장을 창출하는데 있어 함께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내용 참조](#)

인도, 2017년까지 신재생발전 17GW 추가

NEW DELHI TODAY

인도의 주요 일간지, 뉴델리투데이에 따르면, 인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5월 5일 인도의 신재생에너지부 장관 디팍 굽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만 7000MW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는 계속되는 전력난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국가 전체 발전용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LG전자, 유럽연합에 고유 녹색기술 소개



5월 5일, 한국을 방문한 코니 헤데가르드 EU 기후변화대응 집행위원장 등 유럽 대표단 일행은 한국 정부와 국제 기후변화 협상 및 녹색성장 대한 논의를 마치고 국내 산업계의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을 살피기 위해 LG전자 구미사업장을 방문했다. LG전자는 헤데가르드 위원장 일행에게 고효율 생산설비, 저탄소

공정, 그린에너지 시스템, 탄소 배출권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소개하고 방문단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상세내용 참조](#)

한국, 인도네시아와 1000억 원 환경분야 투자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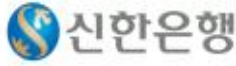


환경부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와 1000억 원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분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과 포스코, GS칼텍스 등 18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중인 3000억 원 규모의 20여 개 환경 사업에 대해 수주 협의를 진행하여 총 4000억 원 규모 환경사업 관련 투자를 논의했다.

[상세내용 참조](#)



신한은행, '희망의 숲' 조성



- 4대강 사업 수변지역 중 낙동강 안동지구 내 신한 희망의 숲 조성
 - 낙동강 발원지인 안동 생태하천 5만3000㎡에 느티나무, 왕벚나무, 청단풍 등 교목과 표지석으로 조성
 - 취지: '신한은행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신한은행 안동지점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종이 사용량 중 일부를 본 나무심기 조성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탄소중립(Carbon neutral) 인증을 받는 첫 사례로 인정받음

KB금융, 녹색·나눔 화두로 그룹 차원 사회공헌 실시



- 5월을 '사회공헌의 달'로 지정하고 계열사 임직원 1만2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
 - 안산시와 공동으로 제 2호 'KB 탄소중립의 숲' 조성
 - 'KB금융그룹과 꿈나무마을의 사랑 만들기' 행사 계획
 - 성동구 '서울 숲'을 찾아 토양개량작업, 잡초제거 일년초 심기 등 환경 가꾸기 활동 예정
-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힘

수출입은행,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 지원



- 파키스탄 파트린드 민자 수력발전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스(PF) 방식으로 1조1000억 원 지원
 - 국내 최초의 수력부문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북동쪽 120Km 지점에 위치한 파트린드 지역에 147MW의 수력발전소 건설
 - 수로식 수력발전: UN청정개발체제 사업등록을 위한 인증절차 진행중
 - 수출입은행 주도로 설립된 수은탄소펀드가 본건 사업의 탄소 배출권 45만 톤(75억 원 상당)을 구매할 예정



대구은행



대구은행, 대학생 녹색기자단 임명

- 친환경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대학생 녹색기자단 운영
 - 5월 6일, 제 2기 'DGB 녹색기자단' 대학생들에게 임명장 수여
 - 기자단은 환경전문가, NGO 회원 등 전문 강사로부터 환경과 기사작성 등에 대한 교육 수료 후 활동 예정
 - 목표: 대구은행의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제고

우리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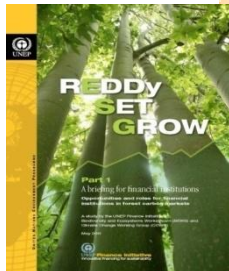


우리은행, 자매마을 모내기 지원 행사' 실시

- 5월 12일, 안성에서 '1社 1村 자매마을 모내기 지원 행사' 진행
 - 2005년 안성 유별난마을과 자매마을로 관계 형성,
 - 바쁜 농번기 일손 돕기 및 농촌 소중함 체험
 - “도·농간의 벽을 허물고 녹색시대를 이끄는 우리 농촌의 모델이 정립 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New Publications

UNEP FI, 런던에서 산림탄소시장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 발표예정



UNEP FI는 'REDDy - Set - Grow: 산림탄소시장 내 금융기관들의 기회, 리스크와 역할' 보고서 발표를 위해 UN REDD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런던에서 일일 워크숍을 개최한다.

본 워크숍은 산림탄소시장 내 규정강화를 추진하는 남아프리카 국제 기후변화 협상보다 한달 앞서 개최될 예정이다. REDDy-Set-Grow는 녹색시장의 진척을 위해 금융기관들의 REDD규제기구에 따른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논의를 제시한다.

본 워크숍은 사금융기업의 리더들과 산림이 풍부한 국가들 내 수석 정책입안자들, REDD+ 이니셔티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빠르게 진화하는 산림탄소금융 영역을 조사하고 금융기관들의 적절한 기회, 리스크와 역할을 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설자는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탄소시장 최고담당자 Abyd Karmali와 인도네시아 REDD+ 태스크포스 총무 Heru Prasetyo, BNP Paribas 환경시장 및 산림 책임자 Christian del Valle등 으로 구성되었다.

[상세내용 및 등록 방법 참조](#)

환경·사회적 리스크 분석 관련 온라인 강의 프랑스어 버전 출시

UNEP FI와 협력사들은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환경·사회적 리스크 분석 온라인 강의 (ESRA) 초판을 진행했다. ESRA의 첫 번째 프랑스어 강의는 10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UNEP FI은 행위위원회 의장 Dag Arne of DnB Nor는 "우리는 프랑스어 판 강의 개강에 대해 매우 기쁘며, 이는 전세계 프랑스어권의 리스크 관리자들과 분석가들에게 핵심 지속가능 금융 우수사례에 대한 확장된 접근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전했다.

카메룬, 콩고 공화국, 모로코와 같은 프랑스어권 나라 출신 참가자 20명이 본 시범강좌에 참여했다.

ESRA 강의는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기반을 두었거나 개발도상국에서 운영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리스크·신용 관리자들이 대출과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규명하고 분석하며 관리하는 데 있어 조력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다음 강의는 5월 9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어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ESRA 온라인 강의는 Ecobanking Project의 지원을 받아 UNEP FI와 GIZ(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INCAE Business School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프랑스어 버전의 강의는 2010년, DEG(Deutsche Investitions-und Entwicklungsgesellschaft mbH), Proparco(Promotion et Participation pour la Coopération Économique), AFD(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Lead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ellowship' 등록 마감일 연장



LEAD Europe은 '2011 LEAD Europe Fellows Programme-개발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고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90여 개국의 지속가능성 리더 2200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5월 3일까지 지원서를 받을 예정이다.

[상세내용 참조](#)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ECO-FRONTI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25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